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최근 애 베타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했다. 학교 어린이들이 새 교사와 운동장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자원봉사자 힘모아 아시아공동체학교 이전



이전 기념으로 열린 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식에서 많은 학생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자원봉사자초대의 날' 행사를 치른 부산 아시아공동체학교를 주민들은 '문현동 1003번지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이 학교는 이름 그대로 한국인과 아시아계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2세를 위한 대안 학교다. 아시아 공동체학교는 2006년 9월 남구 문현동의 낡은 3층짜리 건물에 문을 연 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지난해 말 폐교한 옛 베타초등학교 건물을 임주하여 정착하게 됐다. 그리고 수많은 작은 도움들이 고리로 형성되어 대대적인 내·외부 수리를 하고 이번 봄 학기를 시작하게 되어 그야말로 '1003번지의 기적'이 된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배움터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접점 늘어나면서, 2세들의 교육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국가의 제도권 교육이 이런 문제를 아

직 제대로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2006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아시아 공동체 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험적 대안학교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아시아 공동체 학교가 보낸 지난 4년은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다. 갈수록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멋진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게 돕고 싶어하는 박상호(43세) 상임 이사의 뜻에 공감한 박 이사의 친구 김태균(43·자영업)씨가 2006년 문현동 자신의 3층짜리 건물을 내놓으면서 학교가 시작됐다. 그러나 건물이 낡아 재건축에 들어가야 했기에 할 수 없이 건물을 비우고 대연동 한 사무실을 빌려 쓰다가 지난 1월 이 폐교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고난은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을 비워두었던 관제로 폐교의 유리창은 거의 깨져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또 3층 도서관은 아

예 불에 탄 상태였고 전기와 수도도 끊겨 창고로 쓰기에조차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박 상임이사는 이곳저곳을 발로 뛰며 도움을 요청했다. 차츰 이런 딱한 사정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밀려들었다.

"작년 11월 황우승(44·공구상 운영)씨가 페인트를 기증 해 주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박 상임 이사는 그때부터 도움의 릴레이가 시작 됐으며 환하게 웃는다. 현대건설이 유리창 200여장을 달아 주었고 남해해양경찰청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은행 등은 교실 내부 철거와 단장을 맡아 주었다. 또 남구청은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에 3,000여명 참여

한국전력측은 전기를, KT는 인터넷 및 전화선을, 한국화약은 바닥재를 기부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 디자인 안을 마련해 준 경남정보대 조운배 교수, 남구 자활센터, 부산 연합정소년자원봉사단, 현대건설 직원, 동래고 학생들,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남천성당 빈첸시오회 회원들, 황련사 불자들, 반딧불 봉사단, 롯데건설 자원봉사단, 성심여고 13회 동창회, 오륙도합창단 단원, 김정훈 국회의원 등 '물질'과 '몸', 그도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탈라트'로 이들을 도왔다. 어느 누구는 페인트를 칠하고 다른 누구는 청소를 하고, 또 다른 이는 도배를, 또는 형광등을 갈아 끼우기도 했다.

차츰 학교가 빛나기 시작했다.

어느덧 도움은 부산을 넘어 계속됐다. 서울 어린이아카데미 국제부녀회, 포항공대 학생 등 자원봉사자 수 만 해도 누적인원 3,000명이 넘는다.

3개월 전부터 1:1 멘토링(Mentoring)봉사를 한다는 장도운(29·부경대)씨는 한글 익히기와 수학을 지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를 보면 더욱 의욕이 솟는단다. 현재 9개국 다문화 가정 자녀 40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 아시아공동체 학교에서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국생활 적응 및 자녀들의 학습 도움을 위해 어른을 위한 '한국어 강좌'와 '비즈', '요리 강좌'를 개설한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한국어 강좌는 주 2회, 3개월 과정으로 물론 수업료는 무료이며 비즈와 요리 강좌는 매월 넷째 금요일 오후로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습지원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다문화 청소년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다.

학습, 악기, 스포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학교생활 및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공부방 운영 시간은 오후 5시~7시(월~금) 문의는 633-1390, 담당자: 이상옥(010-7747-9542)으로 하면 된다. 새 학교처럼 단장되었으며 또 카다란 운동장까지 선물로 받은 아시아공동체학교의 다문화 가구 자녀 40명과 7명의 교사들은 희망을 보여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라며 '코리아 최고'를 외친다.

조을홍 기자

대연수목원 자연체험 인기 짱

수목해설사 전진 배치... 33개교 2,200여명 몰려

남구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자연체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12일까지 남부교육청 관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마감한 결과 33개교 2,249명의 학생들이 대거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우수한 수목해설사와 알찬 설명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전문 수목해설사들을 전진 배치해 계절별 나무의 특성과 곤충들을 설명하고 초·중학교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췄다.

또한 자연체험 인프라가 어느 곳보다 잘 갖춰진 것도 원인 중 하나.

자연체험활동의 주무대인 대연수목원에는 유엔기념공원 주차장~대전초등학교 담장 옆까지 수만 그루의 식물들이 종류별로 군집을 이뤄 자연학습장으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완공된 생태하천은 450m에 걸쳐 4개월 맑은 물이 흐르



어린이들이 남구가 운영하는 자연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목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고 곳곳에 정자와 물레방아, 그리고 수종 분수 등이 설치돼 운치를 더하고 있다.

인접한 곳에는 기 조성된 평화공원과 조각공원 등이 있으며, 4월1일부터 개방된 부산 최초의 야외허브 화원도 있어 주말의 경우 하루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새로운 부

산의 명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관계자는 "부산에서 주변공원을 아우러져 수목원이 여가처럼 잘 가꾸어진 곳은 드물다"며 "전문 수목해설사를 배치해 시민들에게 푸른도시 부산을 알리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남해 고령 등 찾아 자연의 소중함 일깨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전한 인성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구가 나섰다.

남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지역 청소년 32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경북 영천에서 첫 행사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6월6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부산광역시교육

청에서 후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체험마을로 유명한 농어촌마을을 찾아 1박2일간 머물며 도시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각종 현장 체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다.

전체 일정을 살펴보면 5.1~2일에는 남해 냉천·삼동마을에서, 5.29~30일에는 고령 개실마을에서 열리며 6.5~6일에는 창녕우포늪에서 마지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배구 스타 산실로 거듭난다

대연중학교 배구부 창단



최근 창단한 대연중 배구부 선수와 감독·코치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연중학교(교장 김해경)는 지난 7일 학교 테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구부 창단식을 가졌다.

이번에 창단한 배구부는 감독과 코치, 그리고 5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선수들은 대부분 가야초등학교 배구부 출신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자랑하고 있다.

주장을 맡고 있는 이승호 선수를

비롯해 제경목·제경배·김동민·이현재 선수는 방과 후 체육관에 남아 3시간가량 훈련을 받고 있다.

2학년인 이승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1학년으로 아직까지 기본기를 익혀야 하지만 투지만큼은 여느 프로선수 못지않다. 고된 훈련이지만 누구 하나 피를 부리지 않고 기술연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학업에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일

반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받으며 '공부하는 운동선수'로 거듭나고 있다.

대연중학교 배구부의 올해 목표는 모자라는 선수를 하루빨리 수급하는 것과 2학기부터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코치진과 선수들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체육관에서 기본기와 전술연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1년 후부터는 소년체육대회 등에서 상위에 입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선수 출신의 박진식 감독은 "겨울철 프로스포츠 중 인기 종목인 배구는 대중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어 고교로 육성하게 된다면 학교 체육활성화는 물론 학교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등과 같은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노려 배구스타 산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구단은 학교자체예산과 교육청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배구협회와 기타 학교체육에 관심 있는 지역인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공경자 기자

숲과 함께 파브르의 꿈을 키워요!

성동초등학교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

문현동 성동초등학교(교장 박종웅)가 교내 숲을 조성하고 '자연생태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회색빛 콘크리트 웅벽과 나대지 같은 하단, 주민들의 왕래하는 길로 사용되었던 학교 운동장, 다소 우범지역의 소지마저 있었던 이 학교가 새롭고 아름다운 도심 속 학교로 변모한 것이다.

수목 및 화초류를 중심으로 테마 숲을 조성한 성동초등학교는 2006년 식물뿐만 아니라 토끼 땀사, 돌, 비오톱 정자, 야외 독서장 등이 어우러진 성동 책마루를 조성했다.

이러한 '숲 사랑 운동'은 교사와

지역민들로 구성된 '성동 숲 사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숲 사랑 사진 촬영대회, 숲 사랑 가족 노래 부르기 대회, 성동 숲 사랑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왔다.

그 결실로 2006년 '부산 녹색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9년 9월에는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아름다운 학교 부문 '어울림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7년 곤충 생태관 개장과 2008년 비오톱(Biotope) 조성으로 '자연생태 체험교실'을 매년 운영한다. 학교 숲의 한쪽에 야생초화를 심은 하우스와 연못 및 180㎡의 곤충생태관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다

양 자연의 신비를 맛보게 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서면 가득한 꽃향기 속에 나비, 도롱뇽, 황소개구리뿐만 아니라 요즈음 시골에서도 보기 어려운 물망게, 물지라, 장구애비, 물명망이, 잠자리수채 등의 수서곤충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체험 코스는 식물체험, 수서곤충체험, 나비생태체험, 풀물들이기, 봉숭아 물들이기, 균형잡자리 만들기 등 다양하다. 식물체험에서는 대나무, 은행나무의 생태 등을 배우며, 나비체험에서는 나비의 생김새, 종류 및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성충이 되는 과정을 차례로 볼 수 있게 된다.

